광주시민 10% 소송 참여…끝 안보이는 군공항 소음 갈등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 언제까지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광주시민(5월 말 기준 145만 5533명)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군 공항 소음 소송에 참여한 상태로, 소송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음 보상법이나 공항 이전의 조속한 시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정부도 보상에 따른 부담을 져야할 처지다.

27건 중 8건 종결·19건 진행 중
3만9620명에 1186억 보상금
광산구 주민들 4번 걸쳐 승소
군 소음 보상법 11월부터 시행
이전 늦어질수록 소송은 늘어

◇**광주시민 10%가 소송 당사자, 계속 늘어나나**=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주민들 998명이 지난 2월 19일 정부를 상대로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만간 변론 기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2174명의 서구 주민들도 지난해 6월 같은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광산구 주민들도 올해 연말 또다시 같은 소송을 준비중이다.

1일 국방부가 내놓은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은 모두 27건(8건 종료)으로, 소송 참여자만 15만7581명에 이른다. 이중 19건은 계속 진행형이다.

종결된 8건 소송에 참여한 7만 896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규모만 1480억원으로, 3만 9620명의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서 1186억원(원금 945억원, 지연이자 241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광산구 주민들의 경우 2005년, 2007년, 2009년에 올해까지 총 4번에 걸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누적 보상금은 675억원에 달한다.

서구 주민들도 2018년, 2019년, 지난달까지 3차례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1만 9672명의 주민이 58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문제는 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1만 6391명을 비롯, 19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손해배상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국방부측도 "2일 2건의 소송의 결과가 추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보상비 지급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전 언제까지**=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 보상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소음 피해를 받고있는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과연 그럴까.

군소음 보상법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하위법령들은 정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 소음영향조사도 여전히 진행중으로 이같은 절차를 거쳐 소음피해 지역을 고시해야 가능해진다.

국방부도 이달부터 1년 6개월간 광주 군 비행장 등 전국 군용비행장 42곳, 군 사격장 61곳 등 103곳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오는 2022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결국 2022년에야 소송을 통하지 않는 소음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군소음법은 법 시행 전 공백기간의 피해액을 소급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과거에 소음 피해보상을 받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은 시점부터 군소음법 실시 이전까지의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음 피해 소송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시민 불편도 감수, 정부도 부담 늘고**=군 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과 관련 소송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도 소송 제기에 따른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야야 하는 형편이다.

광주시는 ▲서구 유덕·서창·치평동 ▲남구 대촌동 ▲광산구 동곡·신흥·우산·도산·송정1·송정2동 등 3개구 10개 동을 광주군공항 소음피해지역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약 30만명의 주민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 중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이상의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85~89웨클 월 3만원, 90~94웨클 4만 5000원, 95~99웨클 6만원, 100웨클이상 7만 5000원)와 실제 거주기간과 인원 등에 따라 다르다. 85웨클이라는 소음영향도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여전히 많다.

임형칠 서구주민대책위원장은 "광주 같은 경우는 군 관련 기관이라 85웨클이 소음평가 기준이지만, 김포는 75웨클이 보상 기준이다"면서 "소음이 군사안보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F22 랩터'가 지난 2018년 5월 훈련을 마치고 광주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막은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사측 주도 운영 방식 '제동'

금호타이어가 2일부터 이틀 간 진행키로 했던 우리사주조합 총회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 결정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 선출, 규약 개정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 안팎에서는 우리사주조합 소속인 전체 직원들 간 공감대 없이 사측 주도로 진행해온 우리사주조합 운영 방식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심재현)는 금호타이어 노조원 A씨가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2일부터 3일 오후 5시30분까지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예정됐던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8일 냈었다.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은 총회를 통해 ▲조합장 선출 ▲이사 선임(2명) ▲감사 선임(1명)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사주조합 총회는 규약이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했거나 결의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규약(28조 2항)에 따른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총회 소집공고에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거나 조합장이 소집했는지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일 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규약(28조 3항)에 따라 1주일 전 소집공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소집공고가 서면 통지에 준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총회 결의로 조합장이 선출될 경우 적법 여부를 둘러싼 조합 내부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맞으면서 노사가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에 500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했었다. 회사가 사원 1인당 1000만원 규모로 500억원을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하는 형태로 지원하면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여 운용하기로 했는데, 최근까지 자발적 퇴사자 등을 고려해 450억원 규모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화관서 몰래 살림 50대…버너·이불 등 짐 1t '수북이'

타는 냄새 난다는 신고 받고
에스컬레이터 빈 공간서 발견
사회 안전망 부재 드러내

광주 상무지구 C영화관 건물에 오랜 기간 몰래 들어가 살고 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으로,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주거 빈곤층과 사회 안전망 부재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서부경찰은 1일 영화관 건물에 침입해 거주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A씨(56)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해당 건물에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영화관 등 건물 곳곳을 살피며 타는 냄새를 쫓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사이 빈 공간에서 잠들어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잠든 사이 끓다가 타버린 김치찌개 냄비가 타면서 나는 냄새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3.3㎡(1평) 남짓한 공간에는 이불, 매트, 옷가지, 가스버너, 낚시대 등 1t 화물차 한 대 분량에 이르는 짐이 곳곳에 쌓여있었다.

현장에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된장·장아찌·인삼주·접시·숟가락·여행용 캐리어 등도 발견됐다.

경찰은 수년 전 에스컬레이터 사용이 중단된데다, A씨가 거주한 3층에 들어선 볼링장측이 에스컬레이터 주변을 벽으로 둘러쳐 보이지 않게 하면서 틈새 공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시 들어갔을 뿐 자신의 물건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을 수개월 간 주거지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A씨는 별다른 직업과 거주지 없이 일용직 노동과 고물을 수집하며 이 공간에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물 관리 관계자는 "이 정도 짐을 모으려면 수개월은 걸렸을 것"이라며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이런 곳에 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 매 물 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